

25.05.22.(목)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 정책제안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적자예상 가맹점도 출점, 설명의무화 필요”

오늘(5/22), 09:3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정책제안식 진행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피해구제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민병덕 위원장)와 함께 정책제안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 설명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정윤기 공동회장이 맡았으며, 현장에서는 협의회 최규호 공동회장을 비롯해 새마을식당 가맹점주, 뽕보이피자 가맹점주 등이 피해사례를 직접 호소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윤기 공동회장은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출점을 제한하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 가맹본부의 상세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으로도 월 매출이 800~900만 원에 불과해 임대료와 재료비 등을 제하면 가맹점주가 가져갈 것이 없는 곳도 출점하게 했다.”고 밝혔다.

최규호 공동회장은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든다. 어제도 더본코리아 직원과 통화했는데, 방송에서 지원방안으로 언급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구체적 계획 없이 책임만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마을식당은 더 이상 메뉴 개발도 하지 않고, 신메뉴는 ‘연구개발’이 아닌

‘신규 브랜드 출점용’으로만 활용된다며, 브랜드 가치는 제고되지 않고 가맹점 수익만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맹점은 고정된 메뉴로 경쟁해야 하는 반면, 본사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빼보이피자의 경우 인근에는 출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계약했지만, 계약서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백종원 대표 이미지를 내세우며 “그럴 수는 없다.”고 구두로만 약속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 신규점포가 들어섰다며 이는 가맹점주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맹점주들은 구체적으로 ▲협상권 제도화 ▲정보제공 기준시점 명확화 ▲수익구조 투명화 ▲예상매출액 설명 의무화 ▲오너리스크 피해구제 명문화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징벌 강화 ▲영업지역 기준의 합리화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협상권은 가맹점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소상공인위원장으로, 지금은 을지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왔다.”며 “같은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을지로위원회를 많이 찾아주신다. 을지로위원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가맹점주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